

'5년의 기다림'... '팀 코리아' 금빛도전 지켜보라

항저우 아시안게임 D-100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하계 아시안게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에 시작해 10월8일 폐막한다.

중국 정부와 조직위원회는 원래 2022년 9월에 열기로 한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년 연기한다고 지난해 7월 발표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이 지구촌을 덮친 2020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정부,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전쟁이 아닌 이유로는 최초로 올림픽 개최를 1년 미뤄 치른 것처럼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같은 길을 걸었다.

2021년에 열렸어도 공식 명칭은 2020 도쿄올림픽이 었듯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공식 명칭 앞에도 '2023'이 아닌 원래 개최 연도인 '2022'가 붙는다.

지구촌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2024 파리하계올림픽(2024년 7월 26일-8월 11일)을 10개월 앞두고 벌어지는 만큼 올해 아시안게임은 올림픽의 전초전 성격도

전 세계 인구의 60%인 47억명이 모여 사는 아시아 대륙의 최대 스포츠 축제인 하계 아시안게임이 오는 9월 23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에서 막을 올린다.



양궁 안산



배드민턴 안세영



수영 황선우



육상 우상혁



탁구 신유빈

2024파리올림픽 전초전...北, 5년 만에 종합대회 복귀 주목 '아시아 1위가 세계 1위', 양궁·높이뛰기·배드민턴 '金 예약'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2018 자카르타-팔렘방 하계 아시안게임 이래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북한의 국제종합대회 복귀 무대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40개 정식 종목의 61개 세부 종목에 걸린 금메달은 483개다.

대한민국 선수단 '팀 코리아'는 지난 8일 대한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를 열어 전 종목에 역대 최다인 1천180명의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리나라의 강세 종목인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처음 열린다. 파리올림픽의 정식 종목인 브레이킹도 대회를 후끈 달군다.

우상혁(육상), 황선우(수영), 여서정(체조), 신유빈(탁구), 안세영(배드민턴), 안산(양궁) 등 도쿄올림픽

을 거쳐 우리나라의 간판스타로 발돋움한 영건들이 세계와 다시 한번 맞붙는다.

2021년 도쿄올림픽(2m35로 4위)을 기점으로 세계 최정상급 점퍼로 도약한 우상혁은 올해 항저우에서는 개인 첫 아시안게임 우승을 노린다.

한국 수영은 '원조 마린보이' 박태환 이후 끊긴 남자 수영의 아시안게임 금맥을 황선우가 다시 이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황선우는 처음 출전하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자유형 100m·200m, 단체전인 계영 800m '3관왕'에 도전한다.

다른 종목에도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태극전사들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안세영(21·삼성생명)은 올해 세계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다.

지난 3월 배드민턴 최고 권위 대회인 전영오픈에서 방수현 이후 27년 만의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는 등 국제대회 8회 연속 결승에 진출해 5년 정상에 올랐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은 아시아 최고가 곧 세계 최고다. 세계랭킹 1위를 놓고 다투는 야마구치 아카네(일본), 안세영, 타이쯔잉(대만), 천위페이(중국)가 항저우에서도 금메달을 놓고 경쟁할 전망이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요

개최지	중국 항저우	중국/세부종목	40/61개
일정	2023년 9월 23일(토)~10월 8일(일)	금메달	483개
마스코트	천천, 중중, 댄댄	엔블럼	

경기장 위치 (총 54곳에서 경기)

19th Asian Games Hangzhou 2022

자료: 항저우 아시안게임 공식홈페이지 | 연합뉴스

탁구 여자복식 신유빈(대한항공)-전지희(미래에셋증권) 조는 적지에서 세계 최고 중국에 도전한다.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22·광주여대)과 2관왕 김제덕(19·에천군청)을 앞세운 한국 양궁 대표팀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세계 최강의 위용을 과시할 전망이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뛰는 이강인(22·마요르카)은 한국 축구의 아시안게임 3연패 도전을 이끈다.



중국 국가체육총국과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경기장 준비를 완료했으며 이번 대회에 45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항저우 황룡 스포츠센터 경기장 모습. /AFP=연합뉴스



15일 대구스포츠타운센터에서 열린 광주선수단 환영행사서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 등 대구시체육회 임직원들이 꽃다발을 전달한 후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등 광주선수단과 영·호남화합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스포츠로 하나된 '달빛동맹'

15-16일 대구서 2023 달빛동맹 스포츠 교류 대회... "2038 AG 공동유치 힘모으자"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 주최하는 영·호남 상생 발전을 위한 '달빛동맹 스포츠 교류대회'가 올해는 대구에서 열린다. 광주와 대구 스포츠인들은 15일부터 이틀간 대구스포츠타운센터,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등 대구시 일원에서 스포츠 교류로 우정과 화합을 다진다.

양 도시 간 화합과 상생 발전을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스포츠 교류대회는 광주시와 대구시가 체결한 달빛동맹의 공동협력사업 중 스포츠 분야도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2013년 광주에서 초·중·고 야구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광주·대구시체육회의 주관으로 매년 번갈아 가며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중단됐다가 2021년 겨울에는 대구에서, 지난해 여름에는 광주에서 스포츠교류 행사를 가졌다.

이번 교류 대회에 광주선수단은 스쿼시,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풋살 등 5개 종목에 143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스쿼시에 국가대표 송동주를 비롯한 전문선수 9명과 동호인부에서 6명

이, 배드민턴에서는 전남대학교부설 고등학교 전문선수 12명과 동호인부 18명 등이 참가한다. 특히, 풋살 동호인부에서 남녀 2팀이 출전하고 테니스에서 3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별 남녀 각 2명씩 출전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룬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스포츠 교류를 통해 체육분야의 발전과 달빛동맹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며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2038년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가 성사되도록 긴밀하게 협조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15일 전남도체육회관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전남도체육회 레슬링·수구팀 창단식에서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이 선수단과 전남체육 발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도체육회, 레슬링·수구팀 창단

전남 전국체전 전략종목 육성...연계 육성 시스템 구축·전남체육 도약발판 마련

전남도체육회가 전남체육 옛 명성 회복을 위해 레슬링과 수구팀을 창단했다.

전남도체육회는 15일 전남도체육회관에서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전략종목 육성 일환으로 레슬링과 수구팀을 창단했다.

창단식은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고성수·유인숙 전남도체육회 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 및 레슬링협회와 수영연맹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전 레슬링 국가대표·청소년 국가대표감독을 겸임하며 현 합평학대학교 감독인 박근철 감독을 선임했으며, 전 합평군청 레슬링

운성용 감독을 명예감독으로 위촉했다. 레슬링팀은 박근철 감독을 비롯해 2010, 2011아시아선수권대회 동메달리스트 이후주,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 이재성,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전략종목 육성 일환으로 레슬링과 수구팀을 창단했다.

수구팀은 전 수구 국가대표이자 현 수구 국가대표 감독인 진만근 감독과 정병영·한호민 등 현 국가대표, 유병진·최진재·송기준·정지현·김동혁·추민중 등 전 국가대표, 윤지훈·나승현·박형민·조혜승 등 전 상비군대표 등 총 13명으로 선수단을 구성했다. 새롭게 출범한 전남체육회 레슬링

팀과 수구팀은 올해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메달에 도전한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레슬링과 수구팀 창단으로 지역 우수 선수 확보와 종목 연계육성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선수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진 만큼 옛 명성 회복은 물론 전남을 빛내고 전남체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선수들 모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체육회 레슬링·수구팀은 지난 3월 대한체육회 팀 창단 공모에 선정돼 3년간 6억6천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박희중기자